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6,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 , 2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 2부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GPS이심을 깨닫기 위해 매일 여러 번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길, 인생의 고갯길 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심지어 막다른 골목이나 도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요 도로로 돌아가서 계속 걸어가도록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 길이 우리를 어딘가 로 인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히브리어 성경이 목표 지향적이며, 불의와 불의와 실패와 이생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덮이는 구약의 세계 선지자들의 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전쟁은 그칠 것이며 당신의 살롬은 온 인류에게 퍼질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화해와 정의와 희망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그 비전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제 지난 강의에서 질문이나 의견,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지침, 해석학적 원리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레슬링 시합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특정 종류의 사물에 대해 민감성을 갖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1, 2, 3, A, B, C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며 항상 동일한 답을 얻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교회 사람들이 특히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담론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몇 가지 광범위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대부분의 예언적 가르침은 지금 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회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보이는 것이 사물의 거대한 계획에서 일시적일 뿐이라는 이상주의와 항상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 예언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원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구약성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나 가르침의 말씀을 더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성경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러나 저는 우리가 구약의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방법론이 초대 교회의 방법론이 아니라면 불의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체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유대 경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는 원래의 단어가 그 자체의 문맥, 그 자체의 상황, 그 자체의 성서에 있습니다. 다음 원칙은 예언의 대부분이 시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역사적 서술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 전체의 약 3분의 1이 시입니다. 옛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언어 제작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장가로서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름답게 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구술적인 문화에서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평행선, 유성음, 치찰음의 사용, 의성어 표현,

직유, 은유 등 모두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다루고 있는 곳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는 동양의 과장법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비 / 나비, 선지자로 묘사하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묘사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며 땅의 티끌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씨나 육적인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씨를 통해 확장된 아브라함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매우 불확실한 그림이 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선지자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에는 직접적인 역사적 서술에서 찾을 수 있는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언어로 단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정확성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언 문학을 연구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점은 결국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예언을 이해하는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을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고 도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페렌 홀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중간 환난주의자가 아니라 왜 주님이 환난 전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 큰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삼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라 불리는 7년의 중간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든의 가장 저명한 동문 중 한 명인 조지 래드(George Ladd)는 인생의 주요 초점이 종말론과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여기 우리 도서관에 7년의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당신은 매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성경의 초점이 누구보다 언제인지에 초점을 두지 않는 이러한 일의 시간에 대해 많은 에너지, 많은 논쟁,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주로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의 절정에 초점을 맞춘 신약의 세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들은 모두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에피파니아(Epiphanian), 그리스도의 현현 또는 출현.

파루시아(Parousia)는 말 그대로 '곁에 있다'는 뜻으로 '도착'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파루시아 (parousia) ,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그리고 물론 세 번째 단어인 묵시록은 계시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 그러므로 신약성경 끝 부분에 있는 작은 편지 요한1서에서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며, 자기 안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그들이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복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종말 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분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가장 균형잡힌 복음주의 종말론자 중 한 사람인 조지 래드(George Ladd)가 그의 책 중 하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복된 소망의 제목으로 사용한 제목이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축복받은 희망이에요. 그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싸여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이라는 장르에 들어갈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 결코 친교를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한 특정 신학교가 떠올랐고 그 곳의 학업 목록과 신앙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의 예언 자료에서 매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중 하나가 다니엘의 70이레입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진이 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다.

신학 학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역 교제에서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진술을 갖게 될 경우. 다시 말하지만, 어거스틴의 말은 매우 좋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 그러나 모든 것에서는 자선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 그러나 모든 것에서는 자선입니다. 문제는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유대인 친구들이 히브리어 성경 전체 이야기의 절정, 즉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종말의 인물과 연관지어 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분열주의자가 됩니다.

또는 Harnack이 말했듯이 교회는 모두 zerspelten 이고 , 모두 분열되고,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의 사소한 요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매우 진실한 많은 신자들이 특정 본문을 해석하거나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이 친교를 시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체계를 가장 단순한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마지막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본질적이고 역사적이며 복음적이며 정통적이고 기본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아래에 포인트와 하위 포인트를 추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제를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당신이 구성하는 카리스마 패키지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무엇을 선포하고 선포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장, 4장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신약성서의 기독교인들의 부활이 미래와 관련된 종말 패키지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초기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움직임이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재회할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돌아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고,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다른 것들. 더 큰 그림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석학의 또 다른 요점인 마지막 때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성경은 때때로 최초의 신자들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약성경 본문을 재해석합니다.

바울은 토라와 그의 조상,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과 나의 조상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을 때 잊지 마세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반도를 유랑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메마르고 마른 땅이라 물이 필요했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얻었을 때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전체 줄거리를 볼 때 매우 직관적이고 해석적인 감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에게 생명수 곧 생수가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 중 일부의 원저자들은 이 본문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로마서 9장 24-26절입니다. 우리는 몇 번의 강의에서 호세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를 가리켜 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대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나는 내 사랑이 아닌 그녀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한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개념과 의미와 원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원문맥을 보면 전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쪽 왕국에서 바알 숭배를 추구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민족적, 육체적, 지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시 데려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원리, 즉 암시하거나 명시하기보다는 암시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문맥이다. 신약성서의 저자는 호세아 자신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의 적용 맥락에 구체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원칙을 확장합니다. 신약성서 작가들이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현대 20세기와 21세기의 주석 논문 작성이 긴장되고 어렵고 지지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 브라이트(John Bright)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존 브라이트(John Bright)를 읽은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구약의 권위에 있는 존 브라이트(John Bright)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는 그 책에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저자들을 사용하시는 일은 때때로 초월하여 진행됩니다. 우리가 성경 주석을 수행하는 좋은 규범적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바울에게 광야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야에서의 그 사건에 대한 권위 있는 신약성경 주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큰 그림의 매우 전형적인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모든 작가들은 이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그림자와 패턴이 이제 하나의 큰 스토리라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텍스트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요엘은 오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교회가 탄생하던 날 일어나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글쎄요, 거기 청중은 누가 구성했습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반응한 청중은 그의 동료 유대인 동포였습니다. 그들 중 3,000명이 미크베호트 에 덩크숏을 했고 , 아니면 스스로 덩크숏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쪽 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성전산(Temple Mount)의 남서쪽 부분. 모든 육체는 요엘의 원래 청중이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적용하면 조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엄밀히 말하면 비유대인, 모든 육체가 지금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야생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 연결에 응답할 때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마도 훨씬 더 진보적인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때때로 구약성서의 특정 본문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은 메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중의 기대는 훨씬 더 전사, 영웅, 군사 챔피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로마의 발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머리를 굽적이며 “당신은 어떤 메시아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읽는 종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아로 오셨지만 대중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쿠데타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내부 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초림 때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중 일부에 대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놀라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예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날짜 설정, 긴 도표, 일종의 독단주의, 부당한 독단주의, 그리고 결국 건전한 해석보다는 추측으로 훨씬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나는 1840년대 보스턴 시에서 윌리엄 밀러가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정했던 그 두려운 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Advent, Seventh-day Adventist, Advent Christ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Advent)이라는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뉴잉글랜드는 기록상 최악의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일종의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전에 엄청난 운석비가 내려서 이것이 시대의 종말이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글쎄, 이러한 실패한 사건 중 몇 가지는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1988년이 언제인지 말해 줄 부모와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해는 이스라엘 건국 후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선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Gordon College에서 그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켜져 있습니다. 그는 Gordon College에 와서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일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혹이 너무 컸습니다.

나는 그가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시리아도 움직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중동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들은 시대말과 관련된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한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세대는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일들을 볼 때까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기간에 대한 추측이 높았습니다. 40년 후인 1988년,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습니다.

물론 2000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름부음받은 온갖 종류의 선지자들이 예복을 입고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길모퉁이를 차지하고 선로를 기절합니다. 종말을 선포합니다. 결국 2000년이었습니다.

늑대라고 불리는 소년처럼. 늑대. 늑대.

늑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의 또 다른 원리.

예언, 특히 외국에 관한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예언 중 상당수는 조건부입니다. 대리석으로 쓰여지거나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고려하십니다. 선지자에 관한 Abraham Joshua Heschel의 교과서에는 캡션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반에 대한 토론.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셀은 선지자가 40일 간격으로 어떤 말을 하면 멸망될 것이라는 개념을 풀어냅니다. 항상 ps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니스웨에 대해 선언된 이 멸망의 예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추신: 회개하면 방금 전달된 메시지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 중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과 관련된 고전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7부터 10까지. 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만일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민족이나 나라가 뿔히고 파멸되고 멸망되리라 하였거늘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대로 그 악을 회개하면 그러면 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나는 물러날 것이다. 저는 NIV에서 relent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제 생각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회개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내가 계획한 재앙을 그 땅에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 경고를 받은 나라가 돌이켜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분은 그 반대편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후일에 내가 한 나라나 한 나라를 건설하고 심으려 하노라 하여도 그것이 내 목전에 악을 행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베풀기로 작정한 복을 다시 생각하리라 좋습니다. 예언의 조건적 성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이렇게 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든 그 예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관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원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적 관점에서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성서의 여기 서서 저 밖을 내다보면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보면 두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였습니다. 첫째 산봉우리는 초림, 즉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시작된 주님의 날을 말하고, 둘째 봉우리는 주님의 날이 완성되는 날을 가리킨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신약에서 사용된 것처럼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악을 심판하고, 자신을 거역한 적들을 처벌하기 위해 오셔서 역사를 방문하실 예정이었으며, 둘째로,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고, 구출하고, 최후의 일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항상 단일 행위의 두 단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웨일랜드(Stephen Weiland)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에 관한 그의 책에서 그를 즐겨 부르는 것처럼 세레 요한, 또는 미크바 사람 요한을 보면 말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구약의 예언 본문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족보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슈아 하마시아, 벤 다윗, 벤 아브라함 의.

그리고 마태복음 1.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 마태복음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족보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그 말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요한이 길을 예비하러 왔을 때에 요한은 전형적인 예언의 말로 독사의 새끼들이 독설하는 말을 하며 너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하며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의의 전령자들이요 독사의 세대라 그들이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니라 다가올 진노를 피하여 도망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통, 육체적 혈통, 자연적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은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라. 믿음과 순종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있습니다. 매우 극적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신탁의 의미에서 매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는 더 강한 분이 오는데 나는 그 신을 신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그의 손에는 키질용 포크가 들려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밀을 곳간에 모아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입니다. 그 언어는 분명히 예수께서 처음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신 복음서에서 읽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곳의 언어는 그가 시작한 일을 심판하고, 정화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종말론을 연기하면서 신약성서를 읽어야 하는 것처럼 구약성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구약의 저자들이 초림에 관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재림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과 택하신 자들 사이에서 시작하신 일을 심판하고, 주장하고, 회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방문으로 여겼습니다.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둘 중 하나가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예측적 예언을 결정론적으로,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또는 운명론적인 방식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조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토라에 구워졌습니다.

거기 부동산 증서가 있어요. 왜? 창세기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언약인 베릿 올람의 일부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까지 뻗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집트 강이 아마도 와디 엘-아리쉬(Wadi El-Arish)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나일 강이 아니라, 확실히 해안을 따라 이스라엘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일 강이나 강까지 내려오는 땅을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델타 지역.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경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현대의 요르단 영토가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갓과 르우벤은 요르단 계곡의 동쪽 기슭에 바로 정착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인용문의 일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첫 장을 읽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에게서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들의 땅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건너가서 만나가 그치고 40년 동안의 기적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을 마치고 여전히 형제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현대 세계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날 요르단 계곡과 접해 있는 서부 요르단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부동산 약속의 일부입니다.

글쎄, 만약 당신이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의와 자비와 연민으로 이해되지 않고 매우 결정론적으로 그것을 읽는다면 그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성전

산에 또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Temple Institute라는 구시가지의 한 위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래의 성전에 참석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결정론적으로 읽으면 에스겔 40-48장을 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이 새 성전입니다. 어떤 비용으로? 691년에 완공된 모스크인 바위 돔을 철거할 건가요? 715년에 알라크사 모스크가 성전 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정치적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내 요점은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미래적인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보고 그것을 미리 기록된 역사로 읽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그들은 헌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사를 나갑니다. 우리는 소유권 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결정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 도덕, 연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미국 사회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정부가 채택한 이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제자리에 두는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살폭탄은 결코 정치적 항의의 형태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입이 있고 항의하고 싶고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의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고난, 과도한 고난을 만드는 방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용할 때 민감하고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 중 일부를 민감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고, 수요일에 제가 거기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 2부입니다.